

# 인쇄술부터 위키백과까지...장대한 지식의 물결

## 지식의 사회사 1, 2

피터 버크 지음, 박광식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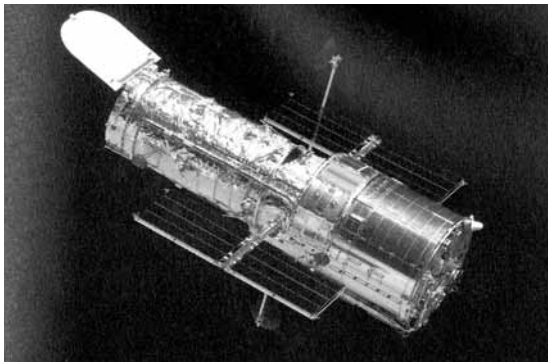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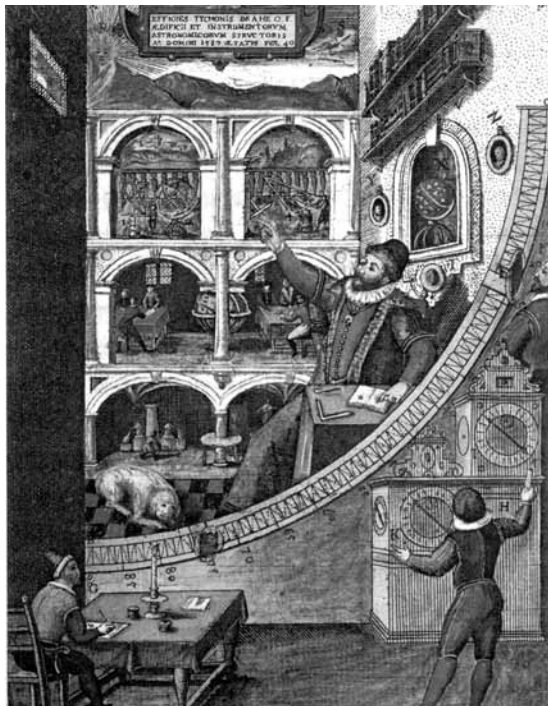
흔히들 21세기를 지식정보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지식'과 '정보'가 어느 때보다 넘쳐 난다. 이미 16세기에 이탈리아 한 작가는 "책이 너무 많다 보니 제목들을 읽을 시간조차 없다"고 불평했다. 철학자 에드먼드 후설은 지식이나 학문은 1900년경에 '위기'를 겪었다고 믿었다.

많은 정보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그 지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인류는 반세기 전에 피터 드러커가 예견한 대로 '지식사회'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지나 오늘의 지식에 이르렀을까? 지식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제기될 것이다.

인쇄술의 발명에서 위키백과의 탄생까지 550년에 걸친 지식의 역사를 조망한 책이 발간됐다. 21세기 최고 문화사학자로 알려진 이매뉴얼 칼리지 종신 석학 교수인 피터 버크가 지식의 장대한 파노라마를 펼쳐낸다. 피터 버크가 펴낸 '지식의 사회사'(2권)는 정치학, 경제학, 지리학, 인류학, 지식사회학 등을 아우르며 명저다.

지난 2006년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된 첫 번째 권은 이번에 새로운 번역으로 다시 나왔다. 두



16~17세기 과학이 발달했던 시기에는 일부 대학들 안에 천문대가 설치되었다. 사진은 튀코 브라헤의 '최신 천체 운동론'에 실린 '벤센의 천문대'(위)와 20세기 강대국들의 과학 경쟁 산물인 허블 우주 망원경.

번째 권은 처음 국내에 소개되는 것으로 '지식'이라는 주제를 더 깊고 철저하게 다룬다.

책은 지식과 유통에 관한 모든 주제를 망라한다. 특히 지식인이 집단으로서 정체성을 자각하기 시작한 근대 초기를 기점으로 지식의 민주화 시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식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보았다는 것과, 지식은 사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또한 작금의 지식의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과 같은 역사적 사건뿐 아니라 설문지, 박물관, 색인, 각종, 대학 등 광범위한 자료를 파고든다. 이를 매개로 오늘의 사고방식과 관습, 편견, 선입견, 이해관계 등이 '지식의 사회사'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제1권은 1450년경부터 1750년경까지 대략 300년의 시간이다. '구텐베르크에서 디드로까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인쇄술자가 발명된 당시부터 '백과전서'가 출판되기 시작한 때까지를 다룬다.

여기에는 카를 만하임과 미셸 푸코 등을 통해 지식사회학이 지식의 역사라는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적 혁신을 돕거나 방해했던 다양한 사회기관의 면모도 여겨졌으며, 인쇄술의 발달로 어떻게 지식의 상업화가 이루어졌는지 들여다본다.

2권은 175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백과전서에서 위키백과에서'라는 부제대로 이 시기는 지식을 배열하는 방식이 부차적 체계가 아니라 주요 체계로 자리잡았다. 나아가 기존 학문의 분과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지식의 사회사를 조망한다. 지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시간적 차원이 그것인데 이를 통해 도시와 국가, 전쟁과 계급, 지식의 기술화와 연대기가 펼쳐진다.

〈민음사 1권 2만1000원, 2권 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세상을 바꾼 다섯 개의 수 넘버스= 새로운 수를 발견할 때마다 인간의 논리와 사고는 진보해 왔다. 인류 지성의 보고이자 문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다섯 개의 수 π, ∞, X, 0, 1을 통해 수학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추적해 나간다. 수학의 본질을 밝히는 다섯 개 수들의 경이로운 탄생과 성장의 드라마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수학이 흥미진진해지고, 그 이해를 넓혀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더 나아가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음사·1만5000원〉

▲결국, 컨셉=대한민국 대표 광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끈 컨셉 디렉터의 이기는 전략. 이 책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약자들, 나만의 브랜드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실패에 다시 도전하는 이들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그동안 마케팅 현장에서 강자들을 이기고 살아남은 위대한 컨셉들을 보여주고,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친다.

〈청림출판·1만4500원〉

▲말에 대하여=혐오와 배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다. 엄마인 '나'와 딸, 그리고 딸의 동성 연인이 경제적 이유로 동거를 시작한다. 못내 외면하고 싶은 딸에의 사생활 앞에 '노출'된 엄마와 세상과 불화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 버린 딸. 이들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며 엄마의 일상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성 소수자, 무연고자 등 우리 사



회 약한 고리를 타깃으로 작동하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낱신 언어와 긴장감 넘치는 장면으로 구현하며 우리 내면의 이중 잣대를 적나라하게 해부한다.

〈민음사·1만3000원〉

▲바다는 잘 있습니다=설명할 수 없는 생의 절박함과 바닷속의 슬픔을 응시하는 깊고 저런 시편들로 우리 마음의 경계를 흔들려온 저자 이병률은 이번 시집에서 감각과 감정의 날을 최대한 버려낸 언어들로 믿음에서 비롯한 사람의 자리를 묻고 또 묻는 일, 어쩌면 사랑과 가까워지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 하지만, 혼자 된 저자가 끝내 그만두지 못한 마음속 혼잣말들은 담장을 쌓아올리듯 겹겹과 포개짐을 반복하며 질문을 낳았고, 이는 혼자야 아닌 말이 되어 끝내 시로 완성되었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괴물이빨과 말하는 발가락=초등학교 동호가 엄마 아빠와 함께 위독하신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집으로 돌아오는 짧은 여정을 섬세하고 서정적인 문체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 튀어나온 빠드렁니에 교정기를 착용해서 친구들에게 '괴물이빨'이라고 놀림 받는 동호, 할아버지와 다룬 후 화해하지 못한 엄마,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이렇게 세 인물의 사연에 얽힌 마음이 동호가 병원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겨울나무와 실 거미를 마주하고, 할아버지의 발가락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조금씩 풀려간다.

〈바람과 아이들·9500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어린이들의 생활습관, 공부습관, 마음습관을 바로잡아 주는 8가지 보물이 담겨있다. 스토리텔링으로 각 주제를 만나고, 보물찾기 면에서는 긍정습관, 꿈·비전, 시간관리, 학습계획, 공부방법, 독서습관, 우정·사랑, 진로계획의 핵심 정보를 전달한다. 실천노트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샘플을 보고 익히며, 자신만



의 노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노란우산·1만3000원〉

▲동물이랑? = 어린이 과학 창의 잡지로, 무엇이든 가능한 오키도 세상에서 어린이들 스스로 세상 모든 호기심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동물은 어디에서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맹이도 꽃과 나무도 모두 동물인지 등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문학수처리북·1만 원〉

# 특별할 게 없어도 여행은 언제나 좋다

## 매일이, 여행

요시모토 바나나 지음



'키친', '도마뱀', '바다의 뚜껑' 등으로 국내에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가 잔잔한 감성의 에세이집을 펴냈다.

동 시대의 감성을 묘사한 작품들이 인상적인 그녀가 펴낸 책은 '매일이, 여행', '남미 등 먼곳으로 떠난 여행 이야기' 뿐 아니라, 책 제목처럼 매일 매일 어제의 다른 오늘을 꾸며주며 만들어가는 '일상으로의 여행' 이야기를 담았다.

모두 47개의 이야기로 꾸러진 책은 세 단락으로 묶였

다. '여행은, 아무리 혹독해도 추억만큼은 멋지게 남는 법', '내가 아닌 생명에 살며시 기대는 그런 행위가 인생에 참맛을 선사해 준다', '이 세상 어떤 일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아무리 가고 싶은 곳도 언젠가는 갈 수 없어진다. 그러나, 이 생애에서 추억을 한 가득 모으고 싶다' 등 세 묶음에 붙여진 작은 소제목은 책의 정서를 함축하고 있다.

1부에서는 세계 곳곳으로 떠난 여행에서 느낀 단상을 담았다. 브라질에서 만난 마테하의 추억,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겪은 추위에 대한 기억, 타이완의 옥 시

장, 오키나와의 산호초 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2부와 3부에서는 사람, 동물, 식물, 주변 풍경, 사물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언가 특별하고 거창한 건 없지만 일상에서 길어올린 단상들은 잔잔한 울림을 전한다.

12년간 늘 함께하던 개와 산책에 나선 어느날, 그녀는 이번 산책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한다. 무거운 몸으로 숨을 가쁘게 쉬던 개는 허벅지거리며 그녀를 사랑스레 울려다 보고 그녀는 울음을 터트리며 "그래, 우리 같이 산책했던 걸 평생 잊지 않을게"라 말한다. 그러면서 생명과 생명의 교류, 관계와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그밖에 10년도 넘는 파란색 비치 샌들에 얽힌 이야기, 동네 은행나무와 관련된 추억,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풍경 등 적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잔잔한 문체로 펼쳐진다.

후속편도 내년엔 출간될 예정이다.  
〈민음사·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감정가 **25,143,000,000**  
건물 6008평 최저가 **14,100,000,000**

###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li> <li>▶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li> <li>▶담양군 남면 만월리 만월제비로위 도로점 토지 4409평 감정가 30,000,000 최소가 30,00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li> <li>▶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li> <li>▶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li> <li>▶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li> <li>▶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중 가능 매매가 17억</li> <li>▶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li> <li>▶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li> <li>▶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li> <li>▶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li> <li>▶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감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li> <li>▶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li> <li>▶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li> </ul>
근 린 시 설	일 반 물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구 봉선동 우체국인근 토지 690평 건물 430평 감정가 4,685,000,000 최저가 4,685,000,000</li> <li>▶서구 농성동 근사거리 도로변 토지 43평 건물 51평 감정가 261,000,000 최저가 261,00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li> <li>▶담양군 담양읍 티미빌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li> <li>▶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앞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li> </ul>

---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